

# 상생 한다더니 노조측 한번도 안 만나...현대차 '먹튀' 우려

## 긴급점검 - 광주형 일자리

### <2> 노사협안 뒷집진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는 새로운 노사상생과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요술 방망이 같은 사업이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4월 광주 빙그레 산단에 1000cc 미만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연간 10만대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공장이 지어진다. 작·간접적인 지원 일자리만 1만20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근로자들이 주 44시간 근무에 기존 자동차업체의 절반 수준인 3000만원대(초임 기준) 연봉을 받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교육·의료지원 같은 복리·후생 비용을 지원 받는 것이다. 특히 근로시간을 최소화해 같은 인건비를 가지고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까지 있다.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8월 광주시와 현대차는 각각 1대 주주(483억원)와 2대 주주(437억원)로 참여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로 출범시켰다. 지난해 12월에는 공장도 착공해 8%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겉으로 순조로운 듯 하던 이번 사업은 지난 2일 노동계 불참 선언으로 스텝이 꼬였다. 벌써부터 사업 투자자들이 투자를 미루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이를 놓고 합작법인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의 리더십이 결여된 무책임한 경영행태, 그리고 기득권만 주장하며 마치 '남의 일 대하듯' 하는 2대 주주 현대차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지역 사회에선 대화와 타협보다는 광주형 일자리의 시적적인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파기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노동계

위기 의식 없이 강 건너 불구경

2대 주주 책임론 부상

노동이사 도입·추천이사 경질

사업 정상화 대응적 결단을

의 태도에 대해서도 굽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우선 현대차 스스로 자신에게 쏟아져 있는 '불신의 산'부터 없애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업엔 자기자본 2300억원과 차입금 3454억원 등 총 5754억원이 투입되는데, 현대차의 투자금은 광주시보다도 46억원이 적은 437억원에 불과하다. 현대차의 사업 참여 범위도 관계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을 통해 공장을 짓고, 현대모비스 등을 통해 자동차 부품공급하고 완성차를 판매하는 것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대당 일정 금액을 받고 차량을 조립한 뒤 완성차를 현대차에 판매하는 구조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현대차는 이 과정에서 적자 등이 발생할 경우 400억원대의 투자금을 포기하고 떠날까 고민이다. 나머지 뒷감당은 고스란히 광주시와 주주, 시민의 몫이다. 현대차가 떠날까 자동차를 생산하더라도 현대차 로고를 달지 못하고 출시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현대차가 광주시민과 투자자의 돈으로 자동차 공장만 짓고, 수익이 안나면 '먹튀'를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지난 2일 광주형

일자리 사회적 협약 파기 선언식에서 "지금까지 사측인 현대차와 단 한차례도 만남을 갖지 못했다. 이게 무슨 노사상생형 사업이냐"면서 "노사간 의견교환 방식도 노동계 의견이 광주시를 통해 현대차에 전달되고, 현대차 답변도 광주시를 통해 노동계에 전달되는 식이다.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탄생했다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재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그들의 요구안을 수용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상 현대차가 모든 카드를 쥐고 있어서다. 핵심인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대차는 물론 국내 대기업들의 반대도 거세기 때문이다. 자칫 광주형 일자리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모든 기업으로 확산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게 한 경제계 인사의 설명이다.

원·하청 관계개선 시스템 구축은 현대차보다도 노동계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다. 크게 대기업인 원청은 민주노총이, 하청인 중소기업은 한국노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구조인 탓에 양대노총간 영역 문제 등까지 얽혀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추천 이사 경질도 현대차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다.

그나마 시민자문위원회 설치와 임원임금 노동자 2배 이내 책정 등이 조율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최근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와 부대표(부사장) 등 상임 이사의 통합연봉을 최대 3억8000만원으로 한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협상에선 투자자와 투자예정자들의 투자절회 등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지금로서는 현대차와 노동계의 대응적 결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진주 기자 lucky@kwangju.co.kr

# 큰 미래!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합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후보자들이 6일 오전 광주시청 로비에서 정책공약 발표회를 한후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5·18 광주정신 계승, 사람 물려드는 문화관광도시 만들 것"

### 민주당 광주시당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송갑석)은 6일 광주시의회에서 총선 출마 후보와 함께 정책공약 발표회를 했다.

이날 발표회는 광주시당과 이병훈, 송갑석, 양향자, 조오섭, 이형석, 이용민, 민형배 후보 등 출마 후보가 함께 준비한 정책비전과 대표공약을 발표하는 자리로 신수정 미래준비 광주선대위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됐다.

'어제와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ACE광주'를 메인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공약집

에는 광주의 역사와 5·18 40주년의 역사를 계승하고, 정의로운 미래도시 광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광주시당과 후보들의 고민이 정책공약과 실천과제로 담겨있다.

특히, 메인슬로건 'ACE광주'의 ▲A는 AI(인공지능)와 Automobile(자동차, 광주형일자리) ▲C는 Culture(아시아문화중심도시) ▲E는 Energy(에너지벨리)로 'ACE'는 광주의 미래비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천년을 꿈꾸기 위한 5대 정책비전'으로 ▲혁신으로 미래를 맞이하는 행복한 도시 ▲안전하고 정의로운 따뜻한 광주공동체 ▲좋은

일자리 창출과 행복한 민생경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로 성장동력 확충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을 제시했다.

참석 후보들은 차례로 낭독한 지역 대표공약을 통해 일하는 국회 만들기, 5·18 광주정신 계승, 사람이 물려드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미래자동차 전진기지 구축, 글로벌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혁신도시 시군2로 공공기관 유치 등을 약속했다.

송갑석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광주가 코로나19 국난 극복의 선두에서 국민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문재인 정부 만든 광주·전남, 민주당의 중심 돼 달라"

### 임종석 전대선실장 인터뷰

"호남주자, 비전과 가치 중요"

호남의 차세대 주자로 평가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오전 광주 송정역에서 광주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문재인 정부를 만든 광주가 민주당의 중심이 돼 달라"고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6일과 7일 이를 일정으로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임 전 실장은 이날 "광주정신은 촛불정신과 하나가 돼서 문재인 정부 탄생에 핵심 동력이 됐다"며 "이번 총선을 계기로 광주·전남이 민주당의 중심으로 다시 서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잇는 4기 민주정부 창출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현재의 민주당 후보 진용으로 호남 정치 복원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호남 정치의 세대교체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겠지만 광주·전남이 민주당의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대 국회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정치와 국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이번 총선의 화두"라며 "광주의 선택을 전국이 지켜보고 있다.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 광주가 새로움을, 변화를 선택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호남 중진의 관록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과가 있겠지만 정치적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온당하다"며 "개인 역량이 뛰어나도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고 민생당 및 무소속 후보들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 등 통합당에서는 입만 열면 정권심판 얘기를 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안정과 혼란을 결정하는 가능성이 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한석이 아쉬운 상황이라는 점을 광주·전남 시도민들께서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친문(친 문재인) 주류 진영의 호남 주자 비토론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당원들은 함께 한 역사가 있으며 결코 지역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며 "호남 출신이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비전과 가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전 실장은 자신의 향후 진로에 대해 "언젠가 저의 진심과 꿈에 대해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광주형 일자리 좌초 위기...민주당 역할론 부상

### 한국노총과 총선 연대 행보

### 중재자 해결 노력은 미흡

전국 최초 노사 상생 지역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한국노총의 협약 파기 선언으로 좌초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총선 연대 행보를 보이는 민주당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시선이 쏠리는데도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양새다.

6일 광주시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지난달 10일 노동 부문 5대 비전·20대 공동약속을 뼈대로 한 공동협약을 발표했다.

협약 이행을 위한 선거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노동 존중 실천 국회의원단을 구성해 이행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지난달 25일 한국노총 광주지역 본부와 협약을 하고 지역 차원의 이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광주형 일자리 협약을 파기하고, 광주시가 동참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나 당 후보의 중재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한국노총과의 동행을 '정책연대'가 아닌 '특보 연대'로 전락시킨 것 아니냐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 이유다. 총선 후 연대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대한 연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에선 민주당의 중재자의 역할을 기대하는 여론이 높다. 민주당 한 총선 후보는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중요 사업"이라며 "총선 이후 참여 주제를 설득하고 중재해 갈등을 봉합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모터스는 임원과 팀장·과장급 경력직 21명을 공개 채용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실무 인력 200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시험생산에 들어가는 내년 4월부터 기술직 1000명도 채용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